

광주U대회 성공 '자신감 UP'... KTX 개통 '속도 UP'

1 '저비용 고효율' 광주U대회 성공 개최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역대 국제대회 사상 가장 '저비용 고효율'로 치른 성공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8169억원 가운데 6172억 원만 쓰고도 U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143개국 만288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성공대회로 치른 것이다. 12만명의 시민들이 지원 봉사에 참여했고,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선수촌을 '도심 재생 방식'으로 해결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은 "광주가 전설을 썼다"라고 극찬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광주U대회를 모범사례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광주 U대회의 투자 및 지출이 1조 6167억원인 반면 생산효과는 3조5275억원, 1조159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2015년 광주는 문화융성의 전기를 마련했다.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11월25일 공식개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화인프라 불모지였던 광주에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 창조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Hub)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지역에 문화산업을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窓)'을 지향하는 문화전당은 민중평화교육원, 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연면적(건물 각종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으로 따져 국내 최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다. 전당 건립에는 토지 보상비와 건립비를 통틀어 7000여억원이 들었다.

3 KTX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

40대 회사원인 박모씨는 서울 출장이 잦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박2일 일정이면 서울 출장이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아침 6시10분에 광주승정역에서 KTX를 타면 7시59분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다. 출근시간에 맞춰 거레저를 방문해 업무를 보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12시50분 열차에 탑승해 잠깐 졸면 광주다. 오후 2시23분, 1시간33분 걸렸다. 호남에도 'KTX 시대'가 열려 광주~서울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다.

지난 4월1일 개통 이후 호남선 철도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만명 이상 늘었다. 예상보다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빨대효과'로 지역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 되레 지역경제가 쪼그라드는 현상도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시동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에 시동을 건 한 해였다. 지난 1966년부터 정상부에 자리 잡은 공군부대로 인해 해발 1187m인 무등산 정상은 그동안 일반인들이 오를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방부·국립공원관리공단·광주시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무등산 정상이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날도 구체화됐다. 협약에 따라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자연생태복원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군부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실시한다. 용역 결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면 광주시와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부대 이전에는 모두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5 천정배 새정치 탈당...무소속 당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광주 서울 등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지난 4월2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에 당시 광주에 와서 정치 재기를 노리고 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3월9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과 광주 서구를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천 후보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무기력에 빠진 호남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천 후보는 52.37%의 득표율로 29.80%에 그친 새정치연합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6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 개통

편도 1차선, 최고제한속도 80km의 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가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500일만에 걸친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있지만 그 명칭이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뀌었다. 전체 사업비 2조1349억원이 투입돼 착공 8년에 개통됐다. 왕복 2차로였던 88고속도로는 추월이 불가능하고, 중앙분리대마저 없어 '죽음의 도로'로 불렸다.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은 과거 2시간12분에서 1시간40분으로 30여분이 단축됐다. 이미 '달빛동맹'으로 유명한 대구와 광주, 동서화합포럼을 재개한 전남과 경북의 상생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확장에 따라 과거 하루 평균 1만3800여대였던 통행량이 단계적으로 2만대 이상으로 늘고, 물류비용 절감액은 연간 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7 F1 3년 연속 '브레이크'...위약금 쟁점

포뮬러원(F1) 대회가 3년 연속 무산됐다. F1조직위원회가 지난 11월 말까지 2016년 대회 개최를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F1대회 주관사인 FOM이 2016년 캘린더에서 한국 대회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F1대회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지난해 대회가 무산됐고 전남도가 대회 적자를 이유로 올해도 포기했다. 연속 대회가 무산돼 위약금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년 개최권료가 4500만 달러(4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11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협상을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F1과 관련 투자한 금액은 8752억원이다.

8 광주전남 연구원 통합·초대원장 사퇴 파동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가장 큰 변화는 '상생'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과제로 지난 2007년 분리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이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행정자치부가 재단법인인 광주·전남연구원 설립계획을 허가한 뒤 이사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초대 원장을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자격자가 부족해 무산된 뒤 2차 공모에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종후보자로 선정됐다. 이후 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압적인 태도,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사회가 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부적격하다'는 지역여론이 강하자 결국 김수삼 이사장이 사퇴했다.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허 원장도 임명 20일만에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다.

9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대박 행진

올해는 담양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자치단체인 담양군이 기획하고 운영한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45일간의 대장정을 대박 행렬로 마감했기 때문이다. 애초 목표 관람객인 90만명을 넘어 104만명이 방문했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인구 5만명의 담양에서 치르는 첫 국제 행사이자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 부존 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한 첫 박람회로 관심을 끌었다. 담양 박람회는 여러 전시·체험 행사로 대나무의 산업적, 인문학적 가치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담양군이 박람회를 통해 18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05억원의 부가가치, 548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10 천경자 화백 별세...위작 논란은 여전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고종 출신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6일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뉴욕으로 건너간 뒤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부터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큰딸 이혜선(71)씨의 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 화백이 숨진 사실은 이씨가 지난 8월 유골함을 들고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했다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확인됐다. 그는 여인의 한(恨)과 환상, 꿈과 고독을 화려한 원색으로 표현하는 독보적인 화풍을 개척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생태', '갈래언니', '고' 등이 있다.

1991년 '미인도' 위작 시비로 절필을 선언하고 뉴욕행을 택했다. 천 화백이 숨진 뒤에도 미인도 위작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